

“쌀 생산량 전남도가 재조사하라”

전남농민단체, 정부 통계 믿을 수 없어... 시군별 자체조사해야 태풍·장마·병해충 피해농가에 재해 지원금 특별 지급도 촉구

전남 농민단체들이 쌀 생산량 행정조사와 쌀 재해 지원금 특별 지급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쌀값 안정화를 명분 삼아 비축미 방출을 저울질 중인 정부를 향해선 “홍년에 쌀값을 잡겠다고 나서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전남 쌀 생산량 행정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전남도에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3차례 태풍과 장마, 병해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쌀 농가에 특별 지원금 지급도 요구했다.

30%씩 줄어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면하고 통계청의 발표에 공식적인 항의나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전남도 자체 통계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됐다.

농민단체는 “전남도 역시 통계청의 조사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답)했다”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쌀 생산량 조사를 촉구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읍, 면, 동, 행정리에 쌀 생산량 자체 조사를 긴급 지점으로 하달, 조속히 쌀 생산량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 대책을 세우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주장이다.

농민단체는 전남도를 향해 쌀 재해지원금 특별 지급도 촉구했다. 3차례 태풍과 길었던 장마, 그리고 수해로 인한 병해충 등으로 전남 쌀 생산량이 급감한 만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쌀 농가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농민들은 “1980년 냉해로 쌀 부족이 발생했던 40년 전 그때보다 더 심한 쌀 흉년”이라며 “포기 수, 낱알 수가 줄었고 쪽집이 농사가 태반이다. 심한 곳은 수확량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해 임차 농가들은 기름을 태우고 있다”고 했다.

전남 농민단체는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공개 답변 요구서를 보내 쌀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흑시 모를 정부의 비축미 방출 계획을 막아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 극심한 재해로 쌀 생산량이 줄어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해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조금 전 도청 앞에서 열렸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 8일 내놓은 ‘2020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6432ha로 전년 72만9814ha 대비 3382ha(0.5%) 줄었고, 생산전망도 전년 374만t보다 11만 t(3.0%) 감소한 363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쌀 생산량 전망치는 72만 7000t으로 전년 대비 0.2%(1500t) 증가했고, 벼 재배면적도 15만 6000ha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농민들은 수확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으며, 쌀값 또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자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당 21만928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지난 25일자 조사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2만5480원) 높은 21만3956원으로 유지되면서 정부 입각에서는 비축미 방출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하늘다람쥐’ 서식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다람쥐(사진)가 서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보통 날다람쥐라고 불린 하늘다람쥐는 몸길이 15cm에서 20cm로 작은 귀와 크고 귀여운 눈망울을 지니고 있고,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 날개와 비슷한 비막(飛膜)이 있어 행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며 날 수 있다.

서식하고 있어 일반 관광객들에게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밖에 연구소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및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를 비롯 오소리, 고라니, 산토끼, 다람쥐, 청설모, 멧돼지, 다양한 곤충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연구소의 안정된 생태 숲이 야생동물들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전전 전남도 산림바이오과장은 “지금까지 지켜온 연구소의 산림생태계를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소에 찾는 관람객들도 야생동물 보호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6일만에 코로나 확진자 2명... 지역감염·해외입국

광주에서 엿새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왔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는 A씨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주 510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지역감염 확진자는 22일 이후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확진자는 미국에서 입국했으며, 광주 도착 즉시 격리돼 접촉자는 없다.

시는 27일부터 옹골·양성병원 77개소 8534명을 전수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1083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는 아직 없다.

/박진표 기자 lucky@

‘재계의 큰 별’ 이견희 회장, 영원히 잠들다

영결식 뒤 자택·화성사업장으로 수백명 임직원과 마지막 인사 장지는 조부모 묻힌 수원 선산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끈 이견희 회장이 영면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영결식에 이어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집무실, 화성 사업장 등에 들른 뒤 수원 선산에 안장됐다.

오전 7시30분부터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강당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족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고인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사장, 고인의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28일 오전 고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운구차량이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이재웅 부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선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민 한화솔루션 사장,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한화건설 팀장 등 한화그룹 3세 삼형제도 나란히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서현 서초사육에는 고인을 기리는 조기가 걸렸다.

영결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영결식은 이수민 삼성 상근고문(전 삼성생명 회장)의 약력보고와 고인의 50년지기 고교 동창인 김필규 전 KPK 회장의 추억, 추모영상 상영, 참석자 헌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윤구현 행렬은 이견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일근 기흥·화성 반도체 사업장(통칭 화성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윤구현은 15분가량 천천히 사업장 내부 도로를 돌며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수백명의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다.

화성사업장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한 차량 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이 회장이 생전 화성사업장을 찾았을 때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다. 윤구현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일부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회장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이별을 고했다. 우선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이견희 회장이 생전에 살았던 한남동 자택, 이태 삼성 서초사육에는 고인을 기리는 조기가 걸렸다.

이후 윤구현 행렬은 이견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일근 기흥·화성 반도체 사업장(통칭 화성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윤구현은 15분가량 천천히 사업장 내부 도로를 돌며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수백명의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다.

화성사업장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한 차량 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이 회장이 생전 화성사업장을 찾았을 때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다. 윤구현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일부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회장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이별을 고했다. 우선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이견희 회장이 생전에 살았던 한남동 자택, 이태 삼성 서초사육에는 고인을 기리는 조기가 걸렸다.

이후 윤구현 행렬은 이견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일근 기흥·화성 반도체 사업장(통칭 화성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윤구현은 15분가량 천천히 사업장 내부 도로를 돌며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수백명의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다.

화성사업장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한 차량 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이 회장이 생전 화성사업장을 찾았을 때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다. 윤구현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일부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회장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이별을 고했다. 우선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이견희 회장이 생전에 살았던 한남동 자택, 이태 삼성 서초사육에는 고인을 기리는 조기가 걸렸다.

이후 윤구현 행렬은 이견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일근 기흥·화성 반도체 사업장(통칭 화성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윤구현은 15분가량 천천히 사업장 내부 도로를 돌며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수백명의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다.

화성사업장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한 차량 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이 회장이 생전 화성사업장을 찾았을 때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다. 윤구현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일부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회장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이별을 고했다. 우선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이견희 회장이 생전에 살았던 한남동 자택, 이태 삼성 서초사육에는 고인을 기리는 조기가 걸렸다.

이후 윤구현 행렬은 이견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일근 기흥·화성 반도체 사업장(통칭 화성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윤구현은 15분가량 천천히 사업장 내부 도로를 돌며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수백명의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다.

화성사업장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한 차량 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이 회장이 생전 화성사업장을 찾았을 때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다. 윤구현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일부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회장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이별을 고했다. 우선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이견희 회장이 생전에 살았던 한남동 자택, 이태 삼성 서초사육에는 고인을 기리는 조기가 걸렸다.

정부, 1112개 여행상품 30% 할인... 외식할인 지원도

30일부터 할인권 지급 재개...관광지 방역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1000여개 여행상품의 가격을 30% 깎아주는 할인권을 제공하고 외식할인 지원 캠페인도 벌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모든 사업 일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

외식할인지원 캠페인도 시행한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명에게 3만원, 4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30일부터는 ‘농촌관광 상품’ 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는 ‘유원시설 이용 할인’을 각각 재개한다.

다만 모든 사업 일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

이억제되고 있고, 방역과의 역량을 확충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해당 사업) 중단, 예약 취소, 연기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를 ‘관광지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지역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숙소, 관광시설, 식당 등에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차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차 제안공고와 같이 공고하고, 이 공고에 의하여 2020년 10월 29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목포시청

구분	내 용
건설 및 운영	- 수거시설 220톤/일 - 수거연회수시설 6.5MW -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등 생활지원시설)

1. 사업대상지: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대상지: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목포시청내)
3. 사업대상지: 목포시 자원회수시설(BTO) (Build-Transfer-Operate)
4. 추정공사기간: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5년, 보상비제외)
5. 권리제한 및 담보부담: 없음
6. 사업대상지: 목포시청내

2. 최초제안자 제한유무 및 우대점수
3. 사업대상지: 목포시청내

4. 사업대상지: 목포시청내

5. 사업대상지: 목포시청내

6. 사업대상지: 목포시청내

7. 기타사항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우미개발(이하 "당사")은 2020년 10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우심홀딩스, 주식회사 거상개발, 주식회사 은탑건설, 주식회사 석탑건설, 주식회사 은탑건설, 주식회사 동탑건설을 당사가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부 일체를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 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주식회사 우미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박준연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우심홀딩스(이하 "당사")는 2020년 10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우미개발이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부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 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주식회사 우심홀딩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김부영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거상개발(이하 "당사")은 2020년 10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우미개발이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부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 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주식회사 거상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장동석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금탑건설(이하 "당사")은 2020년 10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우미개발이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부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 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주식회사 금탑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장동석

자본 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0월 2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총액 금1,100,000,000원을 금675,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220,000주 중 85,000주를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135,000주로 하여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0년 10월 29일
주식회사 구림토건 (201311-0073758)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2층(왕지동)
대표이사 송보경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석탑건설(이하 "당사")은 2020년 10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우미개발이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부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 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주식회사 석탑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장동석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은탑건설(이하 "당사")은 2020년 10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우미개발이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부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 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주식회사 은탑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장동석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동탑건설(이하 "당사")은 2020년 10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우미개발이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부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 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주식회사 동탑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장동석

해산 및 채권신고(2차)

본 회사는 2020년 9월 8일 사원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0월 29일
유한회사 뉴욕버거기동명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1층(양림동)
청산인 채인기

산행안내

11월7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7일 전북 대둔산·돛대봉 단풍산행, 봉선동 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앞 07:50, 비엔리주자재마트 앞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1월8일(일)
▲광주자연보전당사회 11월 8일(일) 작은가야산(경남 합천),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홀플러스 07:2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당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